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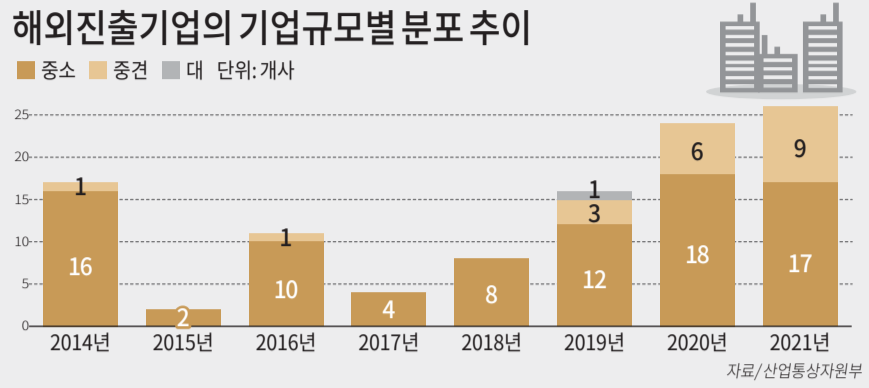
작년 유턴기업 26곳, 고용 55% 늘어 1820명 ‘역대최대’

산업부, 투자규모 6815억 22%↑ 자동차 업종 6곳, 전기전자 5곳 등 정부 지원제도 개선 등 복합 성과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전년대비 2개사가 늘어난 26개사였고, 총 투자규모는 6815억원이었다.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누적 108개사가 해외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되돌아왔다.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1.7개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4개사, 26개사로 2배를 훌쩍 넘었다. 연도별 유턴기업은 2014년 17개사, 2015년 2개사, 2016년 11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8개

사, 2019년 16개사였다. 유턴기업 투자규모 또한 전년대비 22%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유턴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34.6%로 최대였고, 고용규모도 전년대비 55% 증가한 1820명으로 역대 최

고였다. 정부는 이차전지소재 L사와 친환경 경차량용 히트유연구자석 S사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가 복귀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턴기업의 업종은 자동차(6개사), 전기전자(5개사), 금속(3개사)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유턴기업의 69.2%를 차지했다. 복귀한 지역은 경남(8개사), 충남(6개사), 경북(3개사)·대구(3개사) 순으로 많았다.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18개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개사), 미국(2개사)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

외 환경 변화와 유턴기업 대상 지원제도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의 부정요인으로는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 ‘매출감소 등 현지 경영악화’, ‘현지 규제 강화’ 순으로 높았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의 긍정요인으로는 ‘한국 내수시장 확대’, ‘Made in Korea 효과’, ‘국내 우수인력 활용’ 순으로 많이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지원제도 활용 및 유치 활동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작년 10가구 중 7가구 매주 가공식품 구입

농식품부,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구입장소 대형마트·동네슈퍼 순서 주 1회 구입 43%, 주 2~3회 24%

지난해 가구 10곳 중 7곳은 주 1회 이상 가공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장소는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순이었고, 간편식 중 만두·피자류 구매가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 7월~11월까지 전국 2193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구입 주기는 주 1회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43.2%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 주 1회 이상

구입 가구 비율은 70.9%에서 68.4%로 소폭 감소했으나, 주 2~3회 구입 가구 비율은 20.6%에서 23.7%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 수가 많은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구입 주기가 짧았다.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마트(35.1%), 동네 슈퍼마켓(26.8%),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13.2%), 전통시장(9.9%), 온라인 쇼핑몰(9.6%) 순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근거리 동네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 비중은 24.3%에서 26.8%로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가구 비중은 36.4%에서 35.1%로 소폭 감소했다. 간편식 구입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간편식(16개 품목군) 구입 경험률은 만두·피자류(94.8%), 즉석섭

취 식사류(90.0%), 즉석조리 육류(86.9%) 순으로 높았다. 또 간편식 지출액이 많은 품목 조사에서도 만두·피자류(20.5%), 즉석밥류(17.8%), 즉석 국·찌개·탕류(11.2%)가 지출액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행태 조사에서는 응답 가구의 79.5%가 가구 구성원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고, 비타민 및 무기질, 발효미생물류 등을 주로 복용했다. 20대는 발효미생물류(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는 인삼류(인삼, 홍삼) 비중이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복용 이유로는 건강 증진(68.8%), 피로회복(64.1%), 질병예방(48.5%) 순이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회, 새해 첫 본회의 개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만 16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등을 처리했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나서

고용부, 감독관 등 1500명 투입

정부가 12일부터 제조·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3대 안전조치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전국 산업현장의 안전조치를 일제히 점검하기 위해 감독관 등 1500여명과 긴급 순찰자 400여대를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해왔다. 올해도 추락 위험 방지와 끼임 위험 방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특히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를 면밀히 점검, 지도한다. 고용부는 2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50~299인 중소기업 3500여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산재 예방 관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로 보는 중대재해예방 가이드 책자도 각 사업장에 배포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및 제거(Clean) 등 ‘3C’ 실천을 당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고용부, 올 ‘직무능력 은행제’ 시행

올해부터 취업 과정에서 준비한 자격증, 업무 경력 등에 대해 정부 인증서를 받아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 은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

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자격·경력·훈련·교육 등의 직무능력 정보를 모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 은행제’ 운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구축하는 직무능력 정보 시스템에는 국가

기술자격, 일·학습병행 자격, 직업교육 훈련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직자는 관련 정보를 인증서로 발급받아 기업에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 직무능력 정보를 토대로 적합한 인재를 채용·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직무능력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장 등에게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난방텐트’ 설치하면 기온 3℃ 상승 효과

한국소비자원, 7개 브랜드제품 평가 전기장판+텐트 설치때 효과 급상승

추운 겨울철 실내에 설치하는 난방텐트가 기온을 약 3℃ 높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난방텐트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실내텐트 보온효과 시험

대상 제품은 데코뷰(프리미엄), 따뜻한집(리얼패브리), 따수미(패브리), 따숲(프리미엄), 베베데코(베리 원터치), 알프랑(럭셔리), 카즈미(프리미엄 패브리)(브랜드명 가나다 순) 제품이었다. 보온효과는 7개 제품 모두 우수했다. 보온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clo는 높을수록 우수하며, 난방텐트의 보온효과는 평균 1.00clo로 아웃도어 파카(0.70clo)와 다운 자켓(0.55clo)보다 좋았다. 특히, 실내온도 20℃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텐트를 설치하면 내부 공기 온도가 약 23℃로, 텐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3℃ 정도 더 높아져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 7%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줄일 수 있다. 난방텐트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튼튼한 정도인 프레임 강도를 평가한 결과 따수미, 알프랑, 카즈미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난방텐트의 천을 당겨 끊어지는 힘(인장)과 찢어지는 힘(인열)에 견디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세탁 후 색상 및 치수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7개 제품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세종=한용수 기자